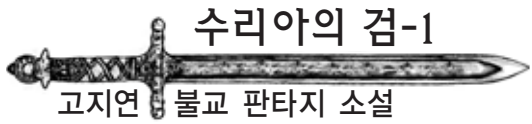


살아야 죽을 수 있어, 그냥 있어서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지



수리아의 검-1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암흑 속의 두 소년⑤

“괴로움이 없는 연못”
무니는 창밖으로 내밀었던 머리를 다시 안으로 들이면서 조용히 그 이름을 발음해 보았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름이었다.

“왜? 저 연못물 한번 마셔보고 싶어?”
무니는 고개를 한번 가웃하더니 “글쎄...”라고 말끝을 흐렸다. 칼키는 그런 그의 표정을 흘깃 쳐다 보더니 어깨를 툭 쳤다.

“하여간 이 시원한 냄새 말아야. 어제보다 좀 더 강해진 거 같지 않아?”

“응. 사실 나도 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젠 좀 더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냄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까부터 왜 자주 냄새 이야기 하는 거야?”

“네 말처럼, 나도 사실은 말아야. 처음부터 여기에 ‘있을’ 생각 같은 건 없었어.”

무니는 “그럼?”이라고 물으면서 자신도 창밖으로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러자 여기서 영원을 살아야 했던 다른 많은 존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운이 좋아서 청소가 되기는 했지만, 이 방에 살았을 누군가를 중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봤어. 너도 보다시피 여긴 책이나 음악도 없고, 물론 사람도 없어. 그런데 미치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그럴 수 없지. 어쩌면 이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했을 지도 몰라. 하지만 보다시피 그것도 우리 같이 몸이 작은 애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니까, 무의미한 일이지. 그럼 그들은 뭘 했을까.”

무니는 문득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녹지 않는 얼음의 성, 변하지 않는 영원에 갇혀 버린 것이다. 무니는 갑자기 답답해오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때 칼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살·아·야 죽을 수 있어. 여기 그냥 있·어·서·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아마 여기 있던 자들 중의 누군가가 그걸 생각했던 거 같아.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 ‘살 수만’ 있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아야.”

“그래도 청소를 통한 소멸이 있다며?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면, 나쁘지 않잖아?”

“어쩐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있던 무니가 대꾸했다.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백 년, 천 년, 혹은 억 년을 하루 같이 그냥 ‘있어야’ 한다고 해도?”

칼키가 반문했다. 그가 이곳에 붙잡혀 온 지 이제 겨우 몇 달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시간이라는 그림 속에 갇

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숨을 쉬는 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몸과 마음에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희망 다음에 절망이 있다면, 절망 다음에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말아야.”

그때 무니가 대답했다
“의지 아니야?”

칼키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맞아! 바로 그거야. 정말 살아야 한다는 의지 말

들 정도였다. 무니는 괜히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휘저어 보았다. 역시 허공이었다. 조금 더 팔을 뻗어볼까, 라는 생각이 무니는 몸을 한껏 창 쪽으로 붙여 다시 팔을 휘저었다.

“너 뭐해?”
무니는 흠칫 놀라 손을 거두고 괜히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흠흠. 그러는 년 뭘 그렇게 보고 있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나간다는 건데?”

다. 그리고 그의 흔들리는 다리를 툭하고 걸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칼키는 “역시 폭력적이군”이라며 소리 내 웃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와서 처음 한 달 정도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 말을 걸 수 있는 상대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는 하루하루였지. 그래서 잠만 잤어.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이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 거야. 나는 얼른 뛰어나가 그에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 향기의 나무라는 게 뭘데?”
“흠. 그건 파라지타라고도 하는데 말이지...”

간수는 칼키에게 향기의 나무 파라지타는 인간계와 천상계 사이에 수 천 그루 이상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향기를 내뿜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하늘을 돌아다니며 온 세계에 향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파라지타는 그 모양 역시 갖가지인데 공통적으로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모습, 즉 거대한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형태라고 했다. 이 아래를 향한 나뭇잎에서 향기의 씨앗들이 쏟아져 내려 세계 곳곳에 퍼지면, 지상의 인간들은 꽃과 풀이나 바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그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줄 의지라는 거야?”

긴 설명은 그만 듣고 싶었던 무니가 칼키의 말을 끊었다. 칼키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게 말이지. 그 나무는 뿌리를 허공에 두고 하늘 위를 떠다니는데, 그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리고.”

칼키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무니가 “뭐하?” 라는 표정으로 그런 그를 바라보는데, 탁자 밑에서 칼키가 안 들어오고 뭐하냐는 듯 무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칼키는 자신 옆에 기어들어온 무니에게 탁자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져서 거의 하나의 도형처럼 보이는 빗금들과 그 사이에 드문드문 적혀있는 어떤 문자들이었다. 그러나 무니는 그 빗금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을 뿐더러 문자도 해석할 수 없었다.

“이게 뭐?”

“저 문자 말이야. 잠부 사람들의 고대 언어거든.”

“고대 언어? 그걸로 여기다 뭐라고 써놓은 건데?”

무니는 손가락으로 탁자 아래에 새겨진 빗금들과 문자들을 더듬으며 물었다.

“향기의 나무에 대한 기록.”

“뭐?”

무니의 눈이 둥그래졌다.



삽화 · 김홍인

이야. 그런데...”

칼키는 말을 멈췄다. 무니는 의아한 듯 그를 쳐다봤다.

“얼마 전에 나는 여기서 그 의지를 발견했어. 그리고 오늘 밤에 그걸 살릴까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너와 같이 여기서 나갈 생각이라고. 이 친구야.”

무니는 칼키의 선언과도 같은 그 말투에 놀라 창틀에 턱을 부딪히고 말았다. 칼키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시선을 다시 하늘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저기 어디선가 까만 점 같은 것이 그들 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칼키의 눈가에 가득했던 웃음기가 사라졌다. 무니도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가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끝없이 펼쳐진 하늘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 아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해서 오히려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쩌면 하늘색 벽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칼키는 창밖에서 몸을 살짝 떼더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안보여, 저거? 잘 봐. 내가 벽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텅 빈 하늘에 뭔가 나타났잖아.”

무니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칼키가 바라보던 곳 쪽을 다시 바라봤다. 그러자 그의 말처럼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 보인다. 보여! 저게 도대체 뭐야?”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줄 의지.”

“여기서 나가게 해줄 의지?”

“응. 바로 향기의 나무야.”

칼키는 창에서 내려와 탁자 위에 걸터앉은 채 천천히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의지는 뭐고, 향기의 나무는 또 뭐냐?”

무니는 칼키를 내려다봤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많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포기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무니는 역시 칼키처럼 베개 위에서 내려와 탁자에 걸터앉았

말을 걸었지. 바로 간수였어. 나중에 들은 건데 그가 얼음의 성을 한번 다 돌아보는데 18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았던 셈이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곳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을때, 건너 방에 있던 어떤 정령도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게 됐어. 내가 이야기했던가. 얼마 전 소멸했다는 그 정령 말이야. 그 정령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그 때 처음 알았지. 아무튼 둘은 이 감옥에 아주 오래 머물고 있던 존재들이라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어. 사실 이 감옥에선 간수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죄수이기도 하거든. 그 대신 그는 매일 매일을 새롭게 살 수가 있지. 물론 인간의 하루와는 다른 종류지만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나와와 대화 같은 건 모두 잊어버리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인지 오히려 쉽게 많은 걸 내게 들려줬어. 정령 아저씨와 함께 말이야. 눈의 산과 얼음의 성, 괴로움이 없는 연못과 소멸의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향기의 나무에 대해서도.”



2011년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배우이던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불교대학 28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19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자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교학과 (2년과정)	불교학과 (2년과정)	불교학과 (2년과정)
1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학	무진장대중사(본대학원), 정병조교수(금강대), 차차석교수(동명대학교), 김상현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주영철교수(동명대학교), 정영섭교수(숭실대), 범상섭교수(숭실대), 보각스님(숭실대)	2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불교학과 180명 : 목요반(오후 2시), 토요반(오후 6시), 통산반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 통산반 각 20명)	한자문해, 한문해석, 공강경(1,2), 중국고전강좌, 우미경(1), 초월심지정론, 삼국유사 등	이윤숙교수	3월 10일(매주-목) 오후 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제다생명, 육체행다리, 차의 미학, 태미발생, 한국차, 중국차, 일본차, 홍차, 차평상	박희준교수	3월 8일(매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3월 10일(매주-목) 오전 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불, 여불, 가을, 겨울)	정상스님	3월 9일(매주-수) 오후 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3년과정/정규반 · 통산반 각 30명)	불교 포교론(2), 팔천승반야경(1), 초기불교 수종론(3)	활안스님, 김형준교수, 최봉수교수	3월 7일(매주-월) 오후 7시, 3월 8일(매주-화) 오후 7시, 3월 10일(매주-목) 오후 5시	
불교다도학과(2년과정 20명)	다경, 다부, 대관다론, 다신전, 동다송	김진숙교수	3월 15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상주권관(이론, 실습) 강좌, 한글의식기본, 예불의식, 왕생의식 실습	만춘스님, 문준순법사	3월 5일(매주-토) 오후 2시	
법매의식반(2년과정 20명)	법매 실기(관음사상, 상응영반, 천수바라, 요잡바라, 나비춤 등)	인각스님	3월 9일(매주-수) 오후 3시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정사항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포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출강 및 통신 2011학년도 제 20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20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 즉시 행정상 보호반도록 지원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